
2021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이탈리아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현황

1. 농업현황

가. 농업규모

□ 2020년 농업 부문의 총부가가치(Gross Added Value, GVA)는 328억 7,810만 유로(한화 약 37조 3,912억 원)로 전년 대비 3.8% 감소

- 이는 전체 총 부가가치(GAV)의 2.2% 수준으로, 농업 부문의 총 부가가치는 최근 5년간 2%대의 수준을 유지

<농업 부문 총부가가치(GVA) 및 비중(2016~2020)>

(단위 : 백만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GVA ¹⁾	전체	1,522,753.8	1,557,795.8	1,589,765.9	1,605,631.5	1,490,612.9	△7.2	△0.5%
	농업 ²⁾	32,701.1	34,257.5	34,461.0	34,191.3	32,878.1	△3.8	0.1%
	비중	2.1	2.1	2.1	2.1	2.2	4.8	1.2%

* 주1 : 당해년가격 기준 GVA

* 주2 : 농축산업 포함

* 출처 : 이탈리아 통계청(2021. 6월 기준)

- 2018년(최신자료) 농업 고용인구는 87만 1,300명으로 전체 고용인구의 3.4% 차지

<농업 고용인구(2016~2020)>

(단위 :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고용인구	24,849	25,138	25,371	25,503	24,978	△2.1	0.1%
농업 고용인구	871	855	871	N/A	N/A	-	-
농업 인구비중	3.5	3.4	3.4	N/A	N/A	-	-

* 출처 : 이탈리아 통계청(2021. 6월 기준)

나. 주요 생산품목 및 규모

□ 2020년 농업 총생산액은 557억 4,000만 유로(한화 약 75조 5,288억 원)로, 최근 5년간 보합세(연평균 0.8% 증가)

- 이탈리아의 여름은 고온건조하며, 겨울은 온난다습해 수목농업에 적합한 기후조건을 보유
 - 이에 여름철에는 포도, 올리브, 감귤류 등이 주로 재배되며, 겨울에는 밀, 귀리, 보리 등의 곡물 위주로 생산

<농업 총생산액(2016~2020)>

(단위 : 천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농업 총생산액	53,466,769	55,768,801	57,239,794	57,315,825	55,740,000	0.1	0.8

* 주 : 농업 총생산액은 농축산물 생산액을 포함

* 출처 : 이탈리아통계청(2021. 6월 기준)

□ 곡물, 포도, 채소류, 과수 등의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이 외에도 과수, 올리브, 사탕무, 감자 등이 생산

- (곡물) 전년 대비 2.9% 증가한 1억 5,026만 6,163퀸들(약 1,502만 6,616톤) 생산, 이 중 옥수수의 비중이 45.6%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6,844만 6,513퀸들(약 684만 4,651톤)
 - 이 외에도 듀럼밀(26.6%) 3,996만 6,919퀸들(약 399만 6,692톤), 밀(17.9%), 2,687만 1,402퀸들(약 268만 7,140톤), 쌀(10.0%) 1,497만 1,329퀸들(약 149만 7,133톤)
- (포도) 단일 품목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 2020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8,295만 1,356퀸들(약 829만 5,136톤)로 집계
- (채소류) 총 8,050만 2,719퀸들(약 805만 272톤)이 생산되었으며, 토마토 생산이 전체의 73.4% 차지
 - 토마토 생산량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5,910만 4,641퀸들(약 591만 464톤)로 집계되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0%의 감소세를 보임

- (과수) 전년 대비 19.3% 감소한 3,403만 3,723퀵들(약 340만 3,372톤) 생산, 사과(43.5%), 복숭아(22.7%), 배(18.0%), 키위(15.8%)로 구성
 - 사과 생산량은 1,481만 4,830퀵들(약 148만 1,483톤)로 전년 대비 37.0% 감소, 이는 전체 과수 생산량 감소세에 영향

<농산물 생산량(2016~2020)>

(단위 : 키타(=100kg),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곡물	곡물 계	166,372,383	147,285,002	148,134,204	145,999,267	150,266,163	100.0	2.9	△2.5
	옥수수	69,033,306	61,118,790	62,831,087	63,914,442	68,446,513	45.6	7.1	△0.2
	두류밀	51,292,050	43,204,956	42,463,627	39,634,178	39,966,919	26.6	0.8	△6.0
	밀	30,066,757	27,800,924	28,084,365	27,469,318	26,871,402	17.9	△2.2	△2.8
	쌀	15,980,270	15,160,332	14,755,125	14,981,329	14,981,329	10.0	-	△1.6
포도		83,939,179	72,603,771	86,428,346	79,729,343	82,951,356	100.0	4.0	△0.3
채소류	채소류 계	90,092,528	86,162,472	83,791,430	80,762,118	80,502,719	100.0	△0.3	△2.8
	토마토	66,780,828	62,807,804	60,039,534	59,617,303	59,104,641	73.4	△0.9	△3.0
	수박	5,546,655	5,970,519	6,116,018	6,805,828	6,777,281	8.4	△0.4	5.1
	멜론	6,629,061	6,316,508	6,338,827	5,261,891	5,256,890	6.5	△0.1	△5.6
	헬넬	5,273,601	5,305,572	5,405,828	5,361,806	5,250,902	6.5	△2.1	△0.1
과수	과수 계	46,456,655	40,986,721	45,219,591	42,170,289	34,033,723	100.0	△19.3	△7.5
	사과	24,632,304	19,405,973	24,366,487	23,529,743	14,814,830	43.5	△37.0	△11.9
	복숭아	9,375,017	8,074,791	7,799,124	8,534,722	7,709,157	22.7	△9.7	△4.8
	배	7,060,379	7,852,963	7,232,877	4,590,532	6,118,135	18.0	33.3	△3.5
	키위	5,388,955	5,652,994	5,821,103	5,515,292	5,391,601	15.8	△2.2	0.01
올리브		22,134,151	27,675,724	21,518,271	23,174,206	25,027,826	100.0	8.0	3.1
사탕무		22,907,170	27,277,245	22,010,160	20,021,875	20,021,875	100.0	-	△3.3
감자		13,942,274	13,891,561	13,425,453	13,682,179	14,635,208	100.0	7.0	1.2
유지류	유지류 계	13,745,100	13,114,260	14,250,250	13,326,287	12,817,054	100.0	△3.8	△1.7
	대두	11,028,566	10,633,808	11,734,512	10,380,730	9,818,855	76.6	△5.4	△2.9
	해바라기씨	2,716,534	2,480,452	2,515,738	2,945,557	2,998,199	23.4	1.8	2.5
감귤류	감귤류 계	24,239,926	22,591,487	23,117,377	23,538,765	12,526,730	100.0	△46.8	△15.2
	오렌지	17,539,371	16,326,007	16,760,484	17,106,669	12,526,730	100.0	△26.8	△8.1
	귤	6,700,555	6,265,480	6,356,893	6,432,096	N/A	N/A	N/A	N/A
구근류	구근류 계	9,924,014	9,078,201	8,634,581	9,792,347	9,642,755	100.0	△1.5	△0.7
	당근/ 파스닙	5,333,383	4,883,539	4,808,240	4,941,668	4,999,554	51.8	1.2	△1.6
	양과	4,590,631	4,194,662	3,826,341	4,850,679	4,643,201	48.2	△4.3	0.3
견과류	견과류 계	2,061,606	2,281,464	2,249,557	1,885,739	2,292,570	100.0	21.6	2.7
	헤이즐넛	1,265,251	1,434,832	1,402,862	1,069,810	1,445,898	63.1	35.2	3.4
	아몬드	796,355	846,632	846,695	815,929	846,672	36.9	3.8	1.5
두류	두류 계	1,721,605	1,771,757	1,988,900	1,778,390	1,829,373	100.0	2.9	1.5
	강낭콩	1,494,257	1,430,824	1,514,524	1,417,720	1,494,389	81.7	5.4	0.002
	병아리콩	227,348	340,933	474,376	360,670	334,984	18.3	△7.1	10.2
고구마		139,590	93,986	83,576	60,272	68,427	100.0	13.5	△16.3

* 출처 : 이탈리아 통계청(2021. 6월 기준)

□ 2020년 닭고기를 제외한 육류 생산량은 2,304만 2,947퀵들(약 230만 4,295톤)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며 보합세

- 돈육 생산량이 전체 육류 생산(계육 제외) 중 3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생산량은 전년 대비 0.4% 증가한 854만 3,029퀵들(약 85만 4,303톤)로 집계
- 뒤이어 양고기(35.0%), 우육(26.0%) 순으로 생산량이 높게 나타남
 - 양고기 생산량은 703만 4,164퀵들(약 70만 3,416톤), 우육 생산량은 599만 3,015퀵들 (약 59만 9,302톤)로 집계
- 동년 계육 생산량은 집계되지 않으며, 2018년(최신자료) 기준 생산량은 13억 7,664만 3,913퀵들(약 1억 3,766만 4,391톤)로 전체 육류 중 가장 많은 생산 비중을 차지
- 2020년 우유 생산량은 1억 1,931만 4,500퀵들(약 1,193만 1,450톤)로 2018년도 대비 6.7% 감소

<주요 축산물 생산량(2016~2020)>

(단위 : 킬로그램(=100kg),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육류	계	1,479,640,914	1,452,503,495	1,399,626,069	22,947,101	23,042,947	100.0	0.4
	돼지	8,447,930	8,570,807	8,492,232	8,510,268	8,543,029	37.1	0.4
	양	7,284,874	7,215,433	7,179,158	7,000,880	7,034,164	30.5	0.5
	소	5,929,767	5,949,393	5,923,204	5,974,947	5,993,015	26.0	0.3
	염소	1,026,263	992,177	986,225	1,058,720	1,065,712	4.6	0.7
	버팔로	385,121	400,792	401,337	402,286	407,027	1.8	1.2
	닭	1,456,566,959	1,429,374,893	1,376,643,913	N/A	N/A	N/A	N/A
우유		121,459,726	125,776,305	127,929,420	N/A	119,314,500	100.0	N/A

* 주 : 2019~2020년 육류 소계는 닭 생산량을 제외하고 집계

* 출처 : 이탈리아 통계청(2021. 6월 기준)

2. 수출입현황

가. 농식품 수출입 규모

□ 2020년 농식품 수출액은 490억 7,248만 8,000달러(한화 약 55조 7,659억 원)로 전년 대비 4.2% 증가

- 주요 수출국은 독일(17.8%), 프랑스(11.6%), 미국(11.3%), 영국(8.4%), 스위스(3.9%) 순
 - 對독일 수출액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87억 1,108만 3,000달러(한화 약 9조 9,027억 원)로 집계
 - 뒤이어 프랑스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57억 1,266만 7,000달러(한화 약 6조 4,930억 원), 對미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55억 6,278만 4,000 달러(한화 약 6조 3,226억 원)로 나타남
 - 영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41억 1,634만 4,000달러(한화 약 4조 7,371억 원), 스위스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19억 3,622만 7,000달러(한화 약 2조 2,282억 원)로 집계
- 이탈리아 농식품의 對한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0.7%에 불과하나, 전년 대비 27.5% 증가한 3,565만 5,600달러(한화 약 410억 원)가 수출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40,642,401	44,119,319	46,909,632	47,105,866	49,072,488	100.0	4.2	4.8
1 독일	7,321,087	7,842,089	8,243,368	7,962,096	8,711,083	17.8	9.4	4.4
2 프랑스	4,548,231	5,064,406	5,521,153	5,567,485	5,712,667	11.6	2.6	5.9
3 미국	4,228,785	4,534,549	4,912,524	5,165,529	5,562,784	11.3	7.7	7.1
4 영국	3,565,210	3,768,993	3,957,877	3,889,679	4,116,344	8.4	5.8	3.7
5 스위스	1,595,597	1,678,591	1,800,780	1,746,550	1,936,227	3.9	10.9	5.0
6 네덜란드	1,462,538	1,590,867	1,725,004	1,759,123	1,835,703	3.7	4.4	5.8
7 스페인	1,417,938	1,675,014	1,723,199	1,750,527	1,633,091	3.3	△6.7	3.6
8 오스트리아	1,314,528	1,435,632	1,469,447	1,444,569	1,487,737	3.0	3.0	3.1
9 벨기에	1,171,088	1,286,229	1,383,815	1,372,582	1,469,145	3.0	7.0	5.8
10 캐나다	844,256	915,349	987,216	972,738	1,081,343	2.2	11.2	6.4
⋮								
25 대한민국	228,564	247,882	261,585	279,627	356,556	0.7	27.5	11.8

*출처 : Global Trade Atlas (2021.6월 기준)

□ 주요 수출품목은 음료·주류·식초(22.2%), 곡물 조제품 및 베이커리류(13.6%), 채소, 과일, 견과류의 부분 및 그 조제품(8.7%), 낙농품과 식용 과일 및 견과류(8.4%) 등

- 농식품 중 가장 수출이 많은 품목은 음료·주류·식초로, 108억 7,902만 2,000달러(한화 약 12조 5,196억 원) 수출되며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 유지(0.2%↑)
- 다만 2016년 이후 5년간 연평균 5.4%의 증가세를 보임
- 곡물 조제품 및 베이커리류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66억 6,511만 8,000달러(한화 약 7조 6,689억 원) 수출되었고, 채소, 과일, 견과류 부분 및 조제품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42억 8,732만 9,000달러(한화 약 4조 9,330억 원)로 집계
- 이 외에도 낙농품 41억 3,014만 달러(한화 약 4조 7,521억 원), 식용 과일 및 견과류 40억 9,976만 4,000달러(한화 약 4조 7,172억 원) 등 수출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40,642,401	44,119,319	46,909,632	47,105,866	49,072,488	100.0	4.2	4.8
1 음료·주류·식초 (HS Code 22)	8,804,155	9,680,884	10,675,832	10,861,939	10,879,022	22.2	0.2	5.4
2 곡물 조제품 및 베이커리류 (HS Code 19)	4,921,522	5,285,276	5,728,475	6,071,982	6,665,118	13.6	9.8	7.9
3 채소, 과일, 견과류의 부분 및 그 조제품 (HS Code 20)	3,530,255	3,679,711	4,014,197	3,956,758	4,287,329	8.7	8.4	5.0
4 낙농품 (HS Code 04)	3,108,385	3,550,821	3,873,709	4,138,880	4,130,140	8.4	△0.2	7.4
5 식용 과일 및 견과류 (HS Code 08)	3,932,425	4,207,741	4,013,774	3,745,379	4,099,764	8.4	9.5	1.0
6 각종 조제 식료품 (HS Code 21)	2,201,077	2,561,822	2,919,218	2,959,148	3,207,236	6.5	8.4	9.9
7 동물성·식물성 유지류 (HS Code 15)	2,378,128	2,423,721	2,432,851	2,204,229	2,394,215	4.9	8.6	0.2
8 육과 식용 설육 (HS Code 02)	2,346,923	2,469,621	2,473,678	2,386,370	2,354,433	4.8	△1.3	0.1
9 코코아와 그 조제품 (HS Code 18)	1,696,224	2,060,692	2,132,906	2,172,100	2,183,655	4.4	0.5	6.5
10 식용의 채소, 뿌리·괴경 (HS Code 07)	1,688,832	1,723,311	1,815,161	1,798,728	1,785,881	3.6	△0.7	1.4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출처 : Global Trade Atlas (2021.6월 기준)

□ 2020년 농식품 수입액은 376억 4,041만 2,000달러(한화 약 42조 8,073억 원)로 전년 대비 2.6% 감소

- 주요 수입국은 독일(13.6), 스페인(11.5%), 프랑스(10.9%), 네덜란드(8.2%) 순으로 전반적인 수입 규모 감소세
 - 독일산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51억 195만 3,000달러(한화 약 5조 8,036억 원), 스페인산은 전년 대비 8.3% 감소한 43억 4,507만 9,000달러 (한화 약 4조 9,838억 원), 프랑스산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40억 9,347만 1,000달러(한화 약 4조 6,524만 원)로 집계
 - 반면 네덜란드산 농식품 수입은 전년 대비 3.3%로 증가하여 30억 8,437만 8,000달러(한화 약 3조 5,489억 원) 규모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3.5% 감소한 829만 5,000달러(한화 약 94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2%에 불과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35,315,878	37,898,451	38,705,270	38,112,973	37,640,412	100.0	△1.2	1.6
1 독일	5,176,976	5,474,448	5,551,260	5,417,193	5,101,953	13.6	△5.8	△0.4
2 스페인	4,000,575	4,761,247	4,463,199	4,739,103	4,345,079	11.5	△8.3	2.1
3 프랑스	4,125,018	4,407,239	4,592,996	4,247,115	4,093,471	10.9	△3.6	△0.2
4 네덜란드	2,892,743	3,102,987	3,253,618	2,986,492	3,084,378	8.2	3.3	1.6
5 벨기에	1,237,011	1,447,035	1,521,545	1,520,880	1,394,358	3.7	△8.3	3.0
6 오스트리아	1,296,326	1,403,018	1,359,183	1,387,689	1,305,075	3.5	△6.0	0.2
7 헝가리	783,068	1,068,635	1,033,238	1,088,104	1,223,225	3.2	12.4	11.8
8 미국	875,566	852,038	1,135,809	1,311,404	1,219,760	3.2	△7.0	8.6
9 브라질	1,013,812	979,361	912,718	1,019,348	1,122,535	3.0	10.1	2.6
10 폴란드	1,150,879	1,267,800	1,273,788	1,264,511	1,109,514	2.9	△12.3	△0.9
⋮								
92 대한민국	8,774	9,796	10,787	9,590	8,295	0.02	△13.5	△0.01

*출처 : Global Trade Atlas (2021.6월 기준)

□ 주요 수입품목은 육과 식용 설육(12.5%), 동물성·식물성 유지류(10.9%), 낙농품(10.6%), 식용 과일 및 견과류(10.4%), 곡물(9.5%) 등

- 육과 식용 설육 수입액은 47억 1,448만 9,000달러(한화 약 5조 4,245억 원)로 전년 대비 10.2% 감소
- 동물성·식물성 유지류 수입액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40억 8,556만 4,000달러(한화 약 4조 7,008억 원), 낙농품은 전년 대비 7.4% 감소한 39억 8,107만 8,000달러(한화 약 4조 5,806억 원) 수입
- 이 외에도 식용 과일 및 견과류 39억 3,039만 5,000달러(한화 약 4조 5,223억 원), 곡물 35억 9,032만 8,000달러(한화 약 4조 1,310억 원) 수입

<품목별 농식품 수입 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35,315,878	37,898,451	38,705,270	38,112,973	37,640,412	100.0	△1.2	1.6
1 육과 식용 설육 (HS Code 02)	4,729,637	5,083,038	5,164,228	5,251,862	4,714,489	12.5	△10.2	△0.1
2 동물성·식물성 유지류 (HS Code 15)	4,173,030	4,581,278	4,227,643	3,877,654	4,085,564	10.9	5.4	△0.5
3 낙농품 (HS Code 04)	3,695,103	4,258,790	4,431,428	4,301,190	3,981,078	10.6	△7.4	1.9
4 식용 과일 및 견과류 (HS Code 08)	3,427,100	3,557,691	3,692,545	3,819,312	3,930,395	10.4	2.9	3.5
5 곡물 (HS Code 10)	3,110,320	3,222,170	3,378,409	3,435,475	3,590,328	9.5	4.5	3.7
6 음료·주류·식초 (HS Code 22)	1,798,368	1,982,891	2,253,890	2,219,719	2,071,510	5.5	△6.7	3.6
7 식용의 채소, 뿌리·괴경 (HS Code 07)	1,687,855	1,822,568	1,805,350	1,995,704	1,858,754	4.9	△6.9	2.4
8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사료용 식물 (HS CODE 12)	1,378,396	1,430,294	1,555,466	1,653,470	1,788,988	4.8	8.2	6.7
9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 (HS Code 16)	1,572,209	1,694,237	1,832,583	1,698,454	1,768,420	4.7	4.1	3.0
10 커피·차·마테·향신료 (HS Code 09)	1,884,768	2,016,585	1,943,081	1,803,721	1,682,310	4.5	△6.7	△2.8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출처 : Global Trade Atlas

나. 한국 농식품 수출현황

□ 2020년 한국산 농식품의 對이탈리아 수출액은 1,858만 7,000달러(한화 약 214억 원)로 전년 대비 9.3% 감소

- 이 중 농산물 수출 비중이 69.4%를 차지,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1% 감소한 1,289만 2,000달러(한화 약 148억 원)로 집계
- 축산물(21.6%)과 임산물(9.0%)의 수출액은 각각 401만 9,000달러(한화 약 46억 원), 167만 7,000달러(한화 약 19억 원)로 집계

<한국산 농식품 수출 규모 (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15,513	15,684	19,859	21,607	18,587	100.0	△14.0	4.6
농산물	10,756	11,360	14,669	16,994	12,892	69.4	△24.1	4.6
축산물	2,246	1,871	3,012	2,755	4,019	21.6	45.9	15.7
임산물	2,512	2,452	2,178	1,858	1,677	9.0	△9.8	△9.6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2021. 6월 기준)

□ 주요 수출 품목은 라면(4.6%), 인스턴트 면류(3.4%), 조제·저장 처리된 과실 및 견과류 기타(2.8%), 기타 조제식료품(2.5%), 기타 음료(2.0%) 등

-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43.6% 증가한 84만 9,000달러(한화 약 10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7.9%의 증가율을 보임
- 반면 인스턴트 면류 수출액은 전년 대비 35.8% 감소한 63만 7,000달러(한화 약 7억 원)로 집계
- 조제·저장 처리된 과실 및 견과류의 경우 전년 대비 3.5% 증가한 51만 2,000달러(한화 약 6억 원)가 수출됨

<對이탈리아 수출 상위 5개 품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15,513	15,684	19,859	21,607	18,587	100.0	△14.0	4.6
1 라면	440	396	548	592	849	4.6	43.6	17.9
2 인스턴트 면류	745	1,055	952	993	637	3.4	△35.8	△3.8
3 조제·저장 처리된 과실 및 견과류 기타	81	293	319	494	512	2.8	3.5	58.5
4 기타 조제식료품 (쌀가루의 것)	445	319	514	616	458	2.5	△25.6	0.8
5 기타 음료 (알코올 미함유)	-	981	1,280	424	365	2.0	△14.1	△28.1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2021. 6월 기준)

Ⅱ. 농식품 시장현황

1. 시장개요

가. 시장규모 및 특성

□ 2020년 식품시장 규모는 1,388억 5,700만 유로(한화 약 188조 152억 원)로 전년 대비 7.6% 증가

- 신선식품이 전체 식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9%로, 시장규모는 665억 1,100만 유로(한화 약 90조 572억 원)로 집계
 - 이 중 육류(18.7%)와 과일류(12.9%)의 시장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육류의 경우 전년 대비 7.1% 증가한 259억 5,800만 유로(한화 약 35조 1,477억 원), 과일류의 경우 전년 대비 7.6% 증가한 178억 5,900만 유로(한화 약 24조 1,814억 원)로 집계
 - 이 외에도 채소류(6.4%) 89억 3,500만 유로(한화 약 12조 982억 원), 달걀(2.5%) 34억 4,900만 유로(한화 약 4조 7,763억 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신선식품 중 전년 대비 시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채소류(11.8% ↑)와 두류(11.6% ↑), 당류 및 감미료(10.9% ↑) 순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연평균 시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채소류(6.2% ↑), 과일류(4.7% ↑), 달걀(3.8% ↑), 당류 및 감미료(3.7% ↑) 순으로 집계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723억 4,600만 유로(한화 약 94조 9,579억 원)로 전체 식품시장의 52.1% 차지
 - 베이커리류(12.7%) 시장규모는 전년도와 유사(0.4% ↑)한 126억 2,100만 유로(한화 약 17조 891억 원)로 전체 가공식품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임
 - 뒤이어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10.0%) 138억 2,800만 유로(한화 약 18조 7,234억 원), 유제품(8.8%) 121억 7,600만 유로(한화 약 16조 4,865억 원), 아이스크림, 냉동 디저트(2.8%) 39억 700백만 유로(한화 약 5조 2,902억 원) 순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 중 쌀, 파스타, 면류 시장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뒤이어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 7.9%, 채소 및 과일 가공품 7.4% 순으로 집계됨

- 최근 5년간 연평균 시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4.6% ↑), 시리얼(4.2% ↑), 스프레드류(3.4% ↑) 등으로 나타남

〈식품시장 규모(2016~2020)〉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9/20)
전체	125,258.0	127,097.5	129,315.5	131,554.3	138,856.9	100	5.6	2.6
신선식품	58,177.4	59,241.0	60,616.6	61,794.0	66,510.7	47.9	7.6	3.4
- 육류	24,062.0	23,556.0	23,808.8	24,237.4	25,958.2	18.7	7.1	1.9
- 과일류	14,883.8	15,685.4	16,212.2	16,598.0	17,859.4	12.9	7.6	4.7
- 채소류	7,026.7	7,483.7	7,775.9	7,991.8	8,934.9	6.4	11.8	6.2
- 수산물	5,589.9	5,743.5	5,851.5	6,038.8	6,310.5	4.5	4.5	3.1
- 달걀	2,966.0	3,054.5	3,180.3	3,196.2	3,448.7	2.5	7.9	3.8
- 뿌리채소·괴경	1,152.4	1,110.2	1,111.5	1,120.1	1,179.5	0.8	5.3	0.6
- 두류	904.6	938.5	935.6	913.2	1,019.1	0.7	11.6	3.0
- 견과류	903.6	939.1	978.7	980.6	1,004.2	0.7	2.4	2.7
- 당류 및 감미료	688.4	730.1	762.1	717.9	796.2	0.6	10.9	3.7
가공식품	67,080.6	67,856.5	68,698.9	69,760.3	72,346.2	52.1	3.7	1.9
- 베이커리류	16,621.5	16,867.2	17,208.0	17,555.8	17,620.6	12.7	0.4	1.5
-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	11,568.6	11,988.9	12,379.0	12,813.9	13,828.0	10.0	7.9	4.6
- 유제품	12,086.6	11,974.0	11,864.5	11,841.7	12,175.6	8.8	2.8	0.2
- 아이스크림, 냉동 디저트	3,680.1	3,737.4	3,806.4	3,882.5	3,906.6	2.8	0.6	1.5
- 쌀, 파스타, 면류	3,180.1	3,165.4	3,139.9	3,177.1	3,517.8	2.5	10.7	2.6
- 제과류	3,509.6	3,481.1	3,434.8	3,415.2	3,394.3	2.4	△0.6	△0.8
- 세이보리 스낵	2,680.2	2,730.6	2,806.3	2,872.4	3,044.4	2.2	6.0	3.2
- 소스, 드레싱, 조미료	2,584.8	2,609.9	2,644.4	2,685.4	2,846.9	2.1	6.0	2.4
- 비스킷, 스낵류	2,241.5	2,268.5	2,320.2	2,391.5	2,481.1	1.8	3.7	2.6
- 즉석식품(Ready Meal)	2,206.8	2,272.9	2,338.9	2,408.5	2,467.4	1.8	2.4	2.8
- 식용유지류	2,195.7	2,169.5	2,147.8	2,091.0	2,193.0	1.6	4.9	0.0
- 채소 및 과일 가공품	1,855.8	1,891.5	1,877.8	1,896.6	2,036.2	1.5	7.4	2.3
- 스프레드류	1,015.1	1,053.4	1,084.3	1,095.1	1,159.2	0.8	5.9	3.4
- 이유식	900.5	869.2	839.1	813.6	807.2	0.6	△0.8	△2.7
- 시리얼	424.9	430.4	449.2	468.1	501.6	0.4	7.2	4.2
- 수프	328.8	346.6	358.3	351.9	366.3	0.3	4.1	2.7

*출처: Euromonitor(2021)

나. 소비인구 및 특성

□ 2021년 인구 수 6,239만 364명, 중위연령 46.5세로 젊은 세대의 비중이 낮은 편

- 55세 이상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36.08%를 차지하며 장년층과 고령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25세 미만 연령층 비중 23.06%로 낮은 편인 반면, 25~54세 40.86%, 55세~64세 이하 14.00%, 65세 이상 22.08% 순으로 집계됨
- 여성 인구 수 3,300만 7,788명(51.82%), 남성 3,006만 8,892명(48.19%)로 비교적 균등한 성비 구조 지님
- 2020년 7월 기준 인구의 노동 참여율은 64.20%로 전월(63.60%)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여성의 사회활동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48.8%에 달함

□ 2020년 가계 가처분소득은 3만 2,039달러(한화 약 3,705만 원)로, OECD의 분류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에 해당

- 동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 6,684유로(한화 약 3,692만 원)로 전년 대비 8.4% 감소

<1인당 연간 국민총소득(GNI) 추이(2016~2020)>

(단위: 10억 유로,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비 (19/20)	연평균 (15/20)
27,737	28,315	28,790	29,146	26,684	△8.4	△1.0

*출처: WorldBank(2021)

□ 2020년 1인당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6.1% 감소한 2만 7,997유로(한화 약 3,841만 원)로 집계

- 이 중 남성의 연평균 임금은 3만 451유로(한화 약 4,177만 원)로 여성 2만 7,322유로(한화 약 3,748만 원)로,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평균 임금에 비해 89.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1인당 평균 임금 추이(2016~2020)>

(단위: 유로,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비 (19/20)	연평균 (15/20)
29,126	29,248	29,564	29,828	27,997	△6.1	△1.0

*출처: WorldBank(2021)

□ 2020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2,650달러(한화 약 324만 원)로 전년 대비 12.4% 증가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1,757달러(한화 약 203만 원)로 전체 식품 소비의 66.3% 차지
 - 육류 소비액이 632달러(한화 약 73만 원)로 전체 식품 소비의 23.9%를 차지하였고, 뒤이어 채소류 402달러(한화 약 46만 원), 낙농품 및 난류 355달러(한화 약 41만 원) 순으로 나타남
 - 과일 및 견과류 소비액은 1인당 연평균 273달러(한화 약 32만 원), 유지류 94달러(한화 약 11만 원)로 집계
 - 신선식품 중 과일 및 견과류 소비액이 전년 대비 11.1%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뒤이어 채소류와 육류 소비액은 각각 전년 대비 10.7%와 10.4% 증가
- 1인당 연간 가공식품 소비액은 894달러(한화 약 103만 원)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하였으며, 전체 식품 소비액의 33.7% 차지
 - 스낵류 소비액이 410달러(한화 약 47만 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뒤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액이 1인당 연평균 349달러(한화 약 40만 원)로 집계
 - 편의식품의 경우 1인당 연평균 95달러(한화 약 11만 원) 소비되었고, 소스 및 향신료 21달러(한화 약 2만 원), 스프레드 및 당류 9달러(한화 약 1만 원)로 나타남
 - 이 중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와 편의식품 소비액은 전년 대비 각각 21.6%와 20.9%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식품유형별 1인당 연간 소비액(2016~2020)〉

(단위: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중
전체	2,340.69	2,341.99	2,348.39	2,356.95	2,650.22	100.0
신선식품	1,584.40	1,585.27	1,589.58	1,595.36	1,756.71	66.3
- 육류	572.26	571.41	571.79	572.69	632.23	23.9
- 채소류	360.08	360.57	361.85	363.46	402.40	15.2
- 낙농품 및 난류	327.42	326.90	327.09	327.58	355.18	13.4
- 과일 및 견과류	240.87	241.97	243.60	245.46	272.61	10.3
- 유지류	83.77	84.42	85.25	86.17	94.29	3.6
가공식품	756.29	756.72	758.81	761.59	893.51	33.7
- 스낵류	354.91	355.19	356.27	357.73	410.06	15.5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286.69	286.39	286.72	287.30	349.45	13.2
- 편의식품	76.23	76.79	77.52	78.32	94.67	3.6
- 소스 및 향신료	19.99	20.06	20.18	20.31	21.26	0.8
- 스프레드 및 당류	9.30	9.27	9.24	9.17	9.39	0.4
- 영유아용 식품	9.17	9.02	8.88	8.76	8.68	0.3

*출처: STATISTA(2021)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규모 제외)

2. 소비트렌드

□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며 식량 비축을 위한 주요 식재료 판매 증가

- 락다운 기간 동안 가정 내 취식을 위해 식재료를 비축해두려는 소비 심리 확대로 기본 식재료의 판매량 증가
 - IRI(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파스타, 우유, 계란, 밀가루와 같은 필수 식재료의 판매량이 20~40% 증가했으며, 식품 구매 규모도 45파운드(한화 약 7만 2천 원)에서 76파운드(한화 약 7만 4천 원)로 69% 증가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이탈리아의 유명 요리사인 마시모 보투라(Massimo Botturasms)는 가정 내 비축된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법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유하기도 함

〈마시모 보투라의 비축 식재료 활용 요리법 영상〉



*출처: Youtube

□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유지를 위한 식품 소비가 트렌드로 자리 잡음

- MZ세대¹⁾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더욱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짙어짐
 - Euromonitor가 이탈리아 소비자 1,131명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특히 MZ세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건강을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칼로리 식품 대신 저열량, 무첨가 제품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신선식품 소비가 증가
 - 이탈리아 사람들은 식품 섭취 전 해당 제품의 열량을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성향을 보임

□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무첨가 식품 및 콩 기반의 단백질 섭취 소비가 증가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은 건강을 위해 글루텐프리와 같은 무첨가 식품 소비를 확대하는 추세
 - 2020년 글루텐프리 파스타 판매량은 코로나 이전 대비 7.1% 증가하였고, 글루타메이트²⁾ 무첨가 제품 소비는 4.9%, 락토스프리 제품 3.6%, 이 외 각종 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무설탕, 무방부제, Non-GMO 등) 제품 소비는 2.7% 순으로 증가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무첨가식품>

			
글루텐프리 파스타	무지방 조미료	무염(Salt-free) 조미료	무설탕케이크

*출처: supermarketitaly.com

1)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용어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며 주관적인 소비를 행하는 것이 특징
 2) 단백질에서 추출한 글루탄산의 나트륨염으로, 음식의 맛을 향상시키는 조미료를 의미

- 콩에 함유된 단백질량이 육류나 생선보다 뛰어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콩 기반 스낵 및 파스타류 등의 소비가 증가함
- 이탈리아에서 널리 판매되는 콩 기반 식품에는 두유와 아이스크림을 포함해 요구르트, 치즈, 두부 등이 있음
- 또한 단백질뿐만 아니라 섬유질과 비타민B, 칼슘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템페³⁾가 수프에 첨가하거나 채소와 함께 섭취되는 방식으로 소비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콩 기반 식품>

			
콩 단백질 기반의 마요네즈	콩 단백질 기반의 치즈	두부버거	콩 단백질 기반의 케이크

*출처: vegaliano.com

- 소규모 가구 수 증가에 따라 한 끼 식사용·소포장 식품 수요 증가
 - 이탈리아 내 1~2인 가구 수 증가하는 반면, 4인 이상 가구 수는 감소하는 추세
 - 2019년 이탈리아의 1인 가구는 총 8,562가구로 지난 2012년 대비 15.2% 증가
 -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밀키트 제품류와 소포장 식품 수요 증가하는 추세
 - 특히 MY cooking box, Second Chef, Quomi 등 이탈리아 내 다양한 밀키트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소비를 촉진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밀키트 제품>

	
---	--

*출처: MY cooking box, Quomi

3)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음식으로 외관상으로는 두부와 비슷하나 발효식품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청국장과 유사

3. 유통현황

가. 유통현황 및 구조

- 2020년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식품시장 규모는 1,466억 2,990만 유로(한화 약 198조 6,856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0%, 전년 대비 5.6%의 성장
 - 전체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현대식 유통채널이 74.3%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3%의 성장세를 보임
 - 이 중 슈퍼마켓의 비중(35.9%)이 가장 큰 규모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525억 8,300만 유로(한화 약 71조 1,985억 원)로 집계
 - 뒤이어 하이퍼마켓(14.0%), 할인점(13.7%), 편의점(10.6%) 순으로 나타나며, 이 중 할인점의 성장률(전년 대비 8.5%, 연평균 6.4%↑)이 가장 크게 나타남
 - 각 유형별 매출액은 하이퍼마켓 204억 7,600만 유로(한화 약 27조 7,239억 원), 할인점 200억 6,000만 유로(한화 약 27조 1,606억 원), 편의점 155억 8,900만 유로(한화 약 21조 1,070억 원)로 집계
 - 포코트 리테일러의 비중은 0.2%에 불과하며, 매출액 역시 2억 7,900만 유로(한화 약 3,777억 원) 수준으로 나타남
 - 전통식 유통채널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376억 4,800만 유로(한화 약 50조 9,697억 원)로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25.7% 차지

<오프라인 식품 유통채널별 시장규모(2016~2020)>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9/20)
합계	130,176.7	132,775	135,379.5	138,857.5	146,629.9	100.0	5.6	3.0
현대식 유통채널	95,893.3	97,884.8	100,559.1	103,340.7	108,982.1	74.3	5.5	3.3
- 슈퍼마켓	43,729.2	44,691.2	46,925.8	48,568.2	52,582.8	35.9	8.3	4.7
- 하이퍼마켓	21,392.4	21,561.9	21,466.0	21,035.4	20,475.6	14.0	△2.7	△1.1
- 할인점	15,677.7	16,414.5	17,230.3	18,488.2	20,059.6	13.7	8.5	6.4
- 편의점	14,827.1	14,942.8	14,657.4	14,965.2	15,584.8	10.6	4.1	1.3
- 포코트 리테일러 ¹	266.9	274.4	279.6	283.8	279.3	0.2	△1.6	1.1
전통식 유통채널	34,283.4	34,890.2	34,820.4	35,516.8	37,647.8	25.7	6.0	2.4

*주1: 포코트리테일러(Forecourt Retailer) - 주유소 내 위치한 소규모 매점

*주2: 하이퍼마켓(Hypermarket): 슈퍼마켓·대형 할인점·백화점의 형태가 결합된 대규모 소매 점포

*출처: Euromonitor(2021)

- 온라인 식품 시장규모는 238억 6,900만 유로(한화 약 32조 3,150억 원)로 전년 대비 24.0% 증가
 - 이 중 전자상거래 식품시장이 전체의 95.2%에 달하는 227억 1,200만 유로(한화 약 30조 7,486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해당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5.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 반면 홈쇼핑 식품시장 규모는 감소세로, 2020년 매출액은 기준 전년 대비 5.0% 감소한 11억 5,700만 유로(한화 약 1조 5,664억 원)로 집계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별 시장규모(2016~2020)〉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9/20)
합계	10,244.3	13,376.1	16,467.4	19,252.2	23,869.3	100.0	24.0	23.5
- 전자상거래	9,056.0	12,176.0	15,257.7	18,034.0	22,712.0	95.2	25.9	25.8
- 홈쇼핑	1,188.3	1,200.1	1,209.7	1,218.2	1,157.3	4.8	△5.0	△0.7

*출처: Euromonitor(2021)

나. 주요 유통채널 현황

□ (오프라인) 현대식 유통채널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089억 8,200만 유로(한화 약 147조 4,722억 원)로 집계됨

- (슈퍼마켓) 코로나19 팬데믹에도 2020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8.3% 증가
 -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및 장갑과 같은 위생 용품을 구비하여 제공함
 - 또한 각 매장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문 시스템을 활성화하였으며,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슈퍼마켓 방문자 감소에 대응

〈주요 슈퍼마켓 브랜드〉

매장명	Conad (CONAD - Consorzio Nazionale Dettaglianti Srl)	Esselunga (Esselunga SpA)	Coop (Coop Italia scari)
사진			
설립연도	1962년	1957년	1967년
점유율	21.6%	14.8%	11.0%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하이퍼마켓)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감소
 - 이는 슈퍼마켓보다 매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이용률이 감소하였고, 또한 이동 제한으로 슈퍼마켓보다 비교적 외곽에 위치하여 방문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주요 하이퍼마켓 브랜드〉

매장명	Ipercoop (Coop Italia scarl)	Bennet (Bennet SpA)	Auchan (CONAD - Consorzio)
사진			
설립연도	1967년	1964년	1961년
점유율	28.2%	7.7%	6.9%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할인점) 타 유통채널 대비 가격경쟁력을 보유해 매출액 증가 추세
 - 이탈리아 소비자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호하며, 이에 주요 할인점에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유입을 유도

〈주요 할인점 브랜드〉

매장명	Carrefour Express (Carrefour SA)	Punto Simply (CONAD-Consorzio)	InCoop (Coop Italia scarl)
사진			
설립연도	2009년	1917년	1967년
점유율	4.8%	4.4%	4.2%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편의점) 거주지 인근 편의점은 접근성이 높아 매출 확대가 가능하였음
 -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유기농, 건강 및 웰빙, 간편식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온라인이나 배송을 통한 제품 구매도 가능한 형태로 발전되는 추세

〈주요 편의점 브랜드〉

매장명	Despar (Internationale Spar Centrale BV)	Sigma (D IT Distribuzione Italiana Soc Coop)	Conad (CONAD - Consorzio)	Crai (Crai Secom Spa)
사진				
설립연도	1932년	1962년	1962년	1973년
점유율	8.0%	6.2%	5.6%	5.2%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2020년 기준 전통식 유통채널의 매출액은 376억 4,780만 유로(한화 약 50조 9,442억 원)로 전년 대비 6.0% 증가

- 코로나19로 외출이 제한되자 야외에 위치한 전통시장 방문을 통해 외출을 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매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

<주요 전통시장>

매장명	Porta palazzo	Mercato Settimanale di Forte dei Marmi
사진		

*출처: www.piemonteitalia.eu, tripadvisor

□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매출액은 227억 1,200만 유로(한화 약 30조 7,750억 원)로 최근 5년간 25.8%, 전년 대비 25.9%의 높은 증가세

- (전자상거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하며 전자상거래 식품시장 성장

<주요 전자상거래(식품) 플랫폼>

채널명	supermarket italy.com	Bella Italy food store	EATALY
사진			
설립연도	2009년	2013년	2010년
홈페이지	supermarketitaly.com	bellaitaliafoodstore.com	www.eataly.net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홈쇼핑) 전자상거래 식품시장의 4.8%에 불과하며, 시장규모도 감소세
- 이에 홈쇼핑 업계에서는 라이브스트리밍 도입, 온라인 플랫폼과 홈쇼핑의 결합 등 소비자 이탈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홈쇼핑 채널>

채널명	Bofrost	staples	Eismann
사진			
설립연도	1987년	1993년	1964년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Ⅲ. 농식품 정책 및 제도

1. 농식품 관련 정책

□ 2021년 7월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설탕 첨가 음료에 대한 세금 규정」이 이탈리아 예산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로 연기

- 해당 규정은 감미료가 많이 함유된 음료의 소비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미성년자의 건강에 해로운 음료 섭취를 제한하고 당뇨병, 비만 등의 예방을 통해 국가의 건강 관련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취지로 도입됨
 - 당 초 건의안에서는 20%의 높은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탈리아 상·하원의 논의 과정을 거쳐 리터 당 0.1유로(한화 약 135원) 수준으로 최종 세율이 조정됨
- 설탕세의 과세 대상은 설탕 또는 감미료가 포함된 알코올 농도 1.2% 이하의 무알코올 음료(과일주스, 탄산음료, 무알코올 맥주 등)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완제품 또는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제품임
 - 즉시 마실 수 있는 완제품의 경우 100리터 당 10유로(한화 약 1만 3,537원),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제품은 1kg당 0.25유로(한화 약 338원)가 부과됨
- 이에 음료 제조업체, 포장업체, 구매자, 수입업체 등은 설탕세 납부 의무를 짐

국내 제조업자	가당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포장업자	재포장 등을 통해 가당음료가 고객 또는 소매점으로 재판매되는 경우
구매자	다른 유럽연합 국가의 가당음료 제품을 구매한 경우
수입업자	EU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한 가당음료가 이탈리아로 수입된 경우

- 다른 EU 국가에서 소비하기 위해 직접 판매하는 수출 음료에 대해서는 설탕세가 적용되지 않음

□ 「유기농식품의 가공 및 라벨링에 대한 규정(REGULATION (EU) No.2018/848)」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발효될 예정

- 이는 2009년 발효된 현행 유럽 내 유기농 규정(EC no.834/2007)의 개정판으로, ‘유기농 생산’을 표기한 제품이 EU의 엄격한 생산 및 가공 요건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
 - 또한 EU 유기농 로고 사용을 통해 소비자가 유기농 제품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
 - 본래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더불어 2차 법안 제정에 제약이 발생해 발효 시기를 1년 연장함
- 이번 개정안에서 수정된 유기농식품 관련 주요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①유기농 인증 범위 확대 ②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요건 개정 ③유기농 제품의 원산지 표시 개정을 골자로 함
 - (유기농 인증 범위 확대) 유기농의 정의를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으로 확대하여, 유기농 규정이 넓은 범위에서 적용
 - 기존 규정에서 유기농은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식품’으로 정의되었으나, 2022년 발효 예정인 개정안에서는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식품 및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종자 및 기타 식물성 재생산물질)’로 정의
 -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요건 개정) 확대된 유기농의 정의를 반영하여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주성분으로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의 사용을 허용
 - 기존 규정에서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 성분을 주로 사용해야 하며, 비유기농 성분의 사용 시 유기농 생산에 사용한다는 승인을 받은 후 제품 중량의 5%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음
 -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유기가공식품으로 생산 시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정 기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나노물질을 함유한 식품사용’과 ‘식품 가공처리 시 유전공학기술(GMOs) 및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유기농 제품의 원산지 표시 개정) 유기농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기재 시 원산지 의무 기재 기준을 완화

- 기존 규정에서는 (i) 사전 포장된 유기농식품의 경우 EU 유기농 로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농산물 원료의 원산지를 기재 (ii) 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해야 하나, 제품 중량의 2%까지는 해당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ii) 항목을 수정하여 ‘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해야 하나, 제품 중량의 5%까지는 해당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확대 적용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발효되어 EU로 제품 수출 시 추가 인증 없이 유기농식품을 표기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개정안 시행 후 유기농 제품 인정 범위 및 유기농식품 표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2021년 4월부터 EU 국가로 복합식품을 수출할 경우 새로운 복합식품 규정 적용

- 복합식품이란, ‘육류, 뼈와 내장과 같은 부산물, 수산물, 유제품, 난류, 꿀, 로열젤리, 젤라틴, 콜라겐 등 동물성 재료를 가공한 동물성 가공식품과 제조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필수적이거나 맛, 향, 점성 등 특별한 성질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식물성 재료가 혼합된 식품’을 의미
- 예를 들어 참치 통조림은 식물성 오일과 수산물이 혼합된 식품이지만, 식물성 오일은 품질 보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물질이므로 복합식품에 해당하지 않음
- 반면 굴 추출물(수산물)과 간장(식물성 재료)이 혼합된 굴 소스는 복합식품에 해당
- 기존 규정에서 복합식품 적용 기준은 ①함량이 무관한 식품과 ②함량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식품으로 분류
- (함량 무관 식품) 식육 또는 유제품을 함유한 비 상온 보관식품은 동물성 가공식품의 함량과 상관없이 복합식품으로 규정
- (함량 기준 분류) 식육 및 비상온 보관 유제품을 제외한 동물 유래 제품의 동물성 가공식품 함유량(50%)을 기준으로 분류

- 개정된 규정에서는 위험도에 따라 ①비 상온 보관 식품 ②식육 함유 상온 보관 식품 ③상온 보관 복합식품으로 분류
- ‘비 상온 보관 식품’과 ‘식육 함유 상온 보관 식품’은 수출입 검역 품목 대상으로 수출국의 공식증명서(Official Certification)를 제출하도록 함
- ‘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경우 사설 인증서(Private Attestation) 제출이 요구됨
 - 다만 육류를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 중 저위험 식품(파스타, 빵, 제과류 등)은 수입 검역 대상 품목에 해당
 - 또한 육류를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경우 유제품, 난류, 수산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품목이 EU가 승인한 수입국에서 생산되어야 함

2. 수입제도

가. 통관제도

□ 농식품 수입통관 절차는 ①적하목록 사전제출 → ②물품 반입 → ③ 물품신고 → ④수입신고 처리 → ⑤관세납부 및 반출 순서로 진행됨

단계	내용
적하목록 사전제출	· EU 수출 화물의 운송인은 화물 적재 24시간 전에 EU의 최초 도착항 관할 세관에 적하목록(ENS, Entry Summary Declaration)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신고대상은 유럽연합 관세구역으로 운송되는 모든 물품이며, 사전 전자형태로 신고해야 함
물품반입	· EU지역 수입물품의 통관 전 반입 장소(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며 반입 장소는 아래와 같음 · 세관 지정 세관 사무소 · 세관 지정 내지는 승인한 기타 장소 · 하역 및 검사: 수입물품 하역 및 환적은 원칙적으로 세관 허가 대상임 · 긴급 사유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세관 즉시 통지 후 수입 물품 하역 및 환적 가능함 · 검사, 샘플 채취 및 운송 수단 검사 목적으로 세관은 수입 물품의 하역 또는 포장 개봉 요구 가능함
수입신고	· 수입신고서(SAD: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신고 방식은 아래의 두 종류임 · 세관의 통관 시스템 전송 방식(인터넷) · 서면 신고서 세관 제출 방식
수입신고 및 처리	·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수입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은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며, 수입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함 · 제출된 수입신고서 관련 검증 서류 · 수입물품 검사, 분석 및 샘플 채취
관세납부 및 반출	· 납세의무자는 관세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출 전 당해 관세를 납부 또는 담보 제공의 의무가 있음 · 관세는 통상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21%) 또는 일부 특정제품 (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 물품세가 부과됨 ※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물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이 가능함 ·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물품 검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단, 수입신고인의 귀책사유에 한함) · 납부기한 내에 관세납부 또는 보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

*출처: 관세청

나. 검역제도

□ EU의 검역지침에 따라 국경검역소에 소속된 세관 사무소에서만 통관 절차를 진행함

- 고기 및 육류 가공품의 경우, EU 수입식품 허가리스트에 등록된 식품만 수입 허가
 - EU국에 도착하는 모든 제품은 검역 대상이며, 이탈리아는 보건부 산하 국경검역소(PIF, Posti d'Ispezione Frontaliera)에서 검역을 실시함
 - 모든 검역 대상은 사전에 국경검역소에 신청하며, 통상 샘플로 실시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수 조사가 진행됨
 - 한국의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수출 최종 목적지까지의 위생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함
- 채소 및 농수산물의 경우, EU가 정한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 허가
 - EU가 정한 화학물 기준치(살충제, 질산염, 중금속, 방사능 물질, 첨가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이탈리아는 항만국경 검역소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에 확인서(nulla osta all'importazione)를 발급
- 제품이 도착하는 공항이나 항구의 관할 검역소에서 검역을 실시하므로 관할 검역소에 검역에 대해 사전 문의·신청해야 함
 - 예를 들어 밀라노 말펜사 공항으로 도착하는 수출품은 사전에 밀라노 말펜사 PIF에 검역을 신청해야함
 - 이탈리아의 모든 PIF가 수입제품에 대한 검역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함
 - 이탈리아가 아닌 다른 EU국을 경유해 제품이 도착하는 경우 도착 국가에서 검역을 하게 되므로 이탈리아에서 따로 검역을 받을 필요가 없음
 - 이 경우 제품을 발송한 사람이 수입회사 관할 지역 보건소(ASL)에 검역 결과를 통보해야 함

□ 2017년 1월 1일 수입부터 유지방 등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복합식품 중
수의검사 제외 품목 규정이 변경됨

- 해당 규정 변경으로 가공육 포함 복합식품은 정식 수의검사 통관을 거쳐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명시
 - 기본적으로 동물성 재료 원산지와 복합식품 제조국이 동일해야 하며, EU 혹은 EU 승인된 제3국의 인가 시설로부터 수입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육류 추출물, 육즙	수의검사 제외에서 폐지
유지방, 계란	함유량이 전체 20% 미만일 경우만 가능

- 수의학 검사 면제 대상 식품 목록 변경으로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육류 추출물, 육류 분말 및 이를 함유하는 제품(예: 면류 및 육수류)
 - 면과 함께 혼합되어 있는 형태(복합식품), 별도의 포장을 동봉하고 있는 형태(복합식품 혹은 육류 제품) 모두 해당
-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기존에는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이었던 식품들도 수입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변경된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도착하는 수화물부터 적용

□ 현재 EU 국가로 수출 가능한 품목은 총 7개 품목 77종이며, 감자, 여주, 감귤 묘목은 수출이 불가함

- 해당 품목 외 수출 가능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 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수출가능 품목	· 곡류(8)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일류(11) : 사과, 배, 감, 단감, 포도, 참다래, 밤, 감귤, 복숭아, 자두, 살구 · 채소류(17)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 종자류(16)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가지, 파, 양파, 상추, 토마토 · 버섯류(8)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7) :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장미, 카네이션, 난초, 국화 · 화훼류 기타(10) : 선인장(절목선인장), 심비디움, 난초, 백합, 글라디올러스, 철쭉속, 장미, 카네이션, 국화, 튤립
수출불가 품목	· 감자, 여주, 감귤묘목

*출처: 2020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농림축산검역본부

- 특히 2021년 7월 5일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 요령」이 개정되며 해당 고시에 따라 관리 후 수출이 가능해짐
- 신선 감귤 수출을 위해서는 하기 조건을 충족해야 함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 <i>Xanthomonas citri</i> pv. <i>citri</i> · <i>Xanthomonas citri</i> pv. <i>aurantifolii</i> · <i>Pseudocercospora angolensis</i> (T. Carvalho & O. Mendes) Crous & U. Braun · <i>Phyllosticta citricarpa</i> (McAlpine) Van der Aa
수출단지 지정신청	· 생산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선과 30일 전까지 지정 신청 필요 -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
수출단지 요건	·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 4조에서 지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속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를 보유하여야 함 - 해당 수출단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이 운영되어야 함 - 1명 이상의 관리책임자를 확보하여 수출단지를 관리하여야 함
재배지 관리	·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에서 지정한대로 관리되어야 함 - 농산물의 병해충 감염 방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의 「농약사용안전지침」에 따라 적절한 방제를 실시해야 함 - 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을 경우, 수출용 농산물 재배지에 품명, 재배면적, 재배자명 및 수출국을 표시한 표지판의 설치가 요구됨 - 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을 경우, 방제상황을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방제가 소홀한 농가의 농산물이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농가 및 관리책임자는 농산물의 수출검역 요건 준수를 위해 매년 지역본보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검역요건 교육의 이수가 요구됨
재배지검역 신청	·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선과 30일 전까지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해야 함 - 매년 참여농가 목록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함
재배지검역	·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에서 지정한대로 재배지검역을 실시해야 함 -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할 경우, 트랩을 설치하여 특정 병해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배지검역결과 기록부에 이를 기록해야 함 - 재배지검역결과 기록부는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되어야 함 - 수입국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재배지는 불합격 조치됨
선과	·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EU 수출용 감귤류가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감귤류 생과실을 Sodium orthophenylphenate(SOPP) 또는 해당 약제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약제를 활용하여 소독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수출검역	·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함 - 검역 결과 지정한 바와 같이 검역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아래의 문구를 명기하여야 함 <i>"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Annex VII, points 57, 58. option(d), 59. option(a), 60. option(d) and 61. option(a) of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2072" (동과실은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ANNEX VII, 57, 58(d), 59(a), 60(d) 및 61(a)에 부합함)</i>

- 분재류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 검역요령」에 따라 관리 후 수출이 가능함
- 국화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해야 함

1) 부록VII,4 : *Thrips palmi* Karny 관련

- 양묘장에서 재배되었고,
- *Thrips palmi* Karny 무발생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 수확하기 전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재배지검사를 실시하여 *Thrips palmi* Karny가 생산지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 수출하기 전 공식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2) 부록VII,7,b : *Bemisia tabaci* Genn 관련

- 생육 기간 동안 관련된 유럽연합 검역병해충의 증상이 없고,
- *Bemisia tabaci* Genn 없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 수확하기 전 재배지검사를 실시하여 *Bemisia tabaci* Genn가 생산지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 *Bemisia tabaci* Genn 박멸을 위해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3) 부록VII,8 : *Liriomyza sativae* (Blanchard), *Amauromyza maculosa*(Malloch) 관련

- 양묘장에서 재배되었고,
- *Liriomyza sativae* (Blanchard), *Amauromyza maculosa* (Malloch) 무발생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 수출하기 전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재배지검사를 실시하여 *Liriomyza sativae* (Blanchard) 및 *Amauromyza maculosa* (Malloch) 가 생산지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 수출하기 전 공식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4) 부록VII,9 : 초본성 다년생 재식용 식물 관련

- 양묘장에서 재배되었고,
- 식물의 부스러기, 꽃 및 과실이 없고,
- 수출 전 적절한 시점에 검사를 하였고,
- 유해 세균, 바이러스 및 바이러스 유사 생명체의 증상이 없고,
- 유해한 선충, 곤충, 응애 및 곰팡이의 증상이 없음이 확인 되었거나 또는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

5) 부록VII,25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ura* 관련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ura*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ura*의 증상이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지역에서 관찰할 수 없었거나,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ura*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처리가 되었음

6) 부록VII,26 :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 관련

-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가 없는 국가에서 재배되었거나,
-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배되었거나,
- 공식적인 검사와 실험에 의해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가없는 생산지에서 전 생육기간 동안 재배되었다는 증명

※ 소독처리 사항은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다. 라벨링 제도

□ 식품 표기는 EU 라벨링 제도를 따르며, 이탈리아는 자국 농산품 보호를 위해 일부 제품에 원산지 표기 의무화 등 자체적인 법안을 도입해 시행

- EU는 건강 및 인체에 직결되는 식품 관련 규정이 엄격해 성분 등 상세정보를 라벨링에 표기하도록 함
- 라벨링 표시 사항은 모든 식품(음료수 포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표시 사항과 자발적으로 표기하는 선택적 표시 사항으로 분류되며, 의무 표기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제품명
 - 성분 및 성분함량 또는 성분 카테고리(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 성분 카테고리 및 특정 성분 순으로 표기)
 - 알레르기 유발성분
 - 유효기간 및 보관방법
 - 제조회사 및 이름 및 주소 또는 EU 내 수입·판매업자
 - 섭취방법(섭취방법 부재 시 식품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
 - Net용량, 영양성분, 알코올도수(1.2% 이상의 알코올 음료에만 해당)
 - 원산지(원료의 일부가 제품의 원산지와 달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을 경우)
-

- 유럽 내 유통되는 식품(음료수 포함)의 경우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표기해야 하는데, 표기가 필요한 알레르기 유발 항원 인자는 다음과 같음

· 셀러리 · 글루텐을 함유하고 있는 곡물(밀, 귀리, 보리, 호밀 등) · 갑각류 · 계란 · 어류 · 루핀 · 우유(락토즈 포함)	· 이미패류 · 견과류(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캐슈넛, 피칸, 브라질넛,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넛, 퀴즐랜드넛) · 깨 · 대두 · 10mg/kg 또는 10mg/liter 이상으로 농축된 아황산 및 아황산염
--	---

□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유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에 포함 성분 원산지를 추가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우유, 버터, 요거트, 치즈 제품의 경우 원료 생산지를 제품 포장에 명시해야 함

- 동물로부터 생산된 우유의 경우 우유 생산지와 해당 제품이 가공된 곳 역시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같은 나라 안에서 추출, 가공, 패키징된 경우 하나의 라벨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제품 생산 단계에서 여러 EU 국가 또는 이외 국가를 거친 경우 모두 다른 라벨을 사용해야 함
- 유럽연합의 ‘원산지보호지정(PDO)’ 또는 ‘지리적보호지침(PGI)’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이미 성분 원산지에 대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됨
- 우유를 포함하지만 유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기농 식품 역시 제외됨

□ 이탈리아 농림부, 이탈리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파스타면과 쌀 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에 성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는 새로운 라벨링 정책 발표

- 이탈리아는 유럽 최대의 쌀 생산국으로 유럽 내 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나 가격경쟁력이 월등히 뛰어난 동남아산(베트남 등) 쌀이 국내시장을 잠식하자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쌀에 원산지 표기화를 의무화 함
- 이에 생산자들은 2018년 2월 16일 해당 규제가 발효되기 전까지 제품의 라벨과 포장을 교체해야 함

□ 건강식품에는 정확성이 결여되고 애매모호하며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하도록 만들거나 허위내용이나 의학적 효과를 준다는 내용의 카피문구 사용이 금지됨

- 포지티브 리스트에 없는 카피문구를 라벨이나 광고와 홍보에 사용하려는 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함
- 건강식품, 어린이용 식품과 같이 카피 문구의 삽입이 필요한 제품에 관해서 법규를 어기고 판매될 시 판매 금지 및 수거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와 사전에 논의하여 라벨에 들어갈 문구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유럽위원회는 EU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시장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5월 28일 식품 주요 성분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새로운 라벨링 규칙을 채택

-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유럽위원회의 식품 라벨링 규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 용이한 정보 전달을 위한 최소 글씨 크기 규정
 - 가공식품 내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위험성 있는 성분의 경우 명확한 표기
 - 가공식품의 경우 명확한 영양성분 표기
 - 식물성 성분 원산지 표기
 - 육류, 생선 포함 식품의 경우 명확하게 표기
 - 해동 식품의 경우 명확한 표기
-

- 육류 및 육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돼지, 양, 염소 등 육류 및 가금류의 원산지 표시: 고기 양육 및 도살 장소에 대한 표시는 Regulation(EU) No 1337/2013 채택
 - 식품 재료로 사용된 육류 원산지 표시 : 식품 주성분으로 사용된 육류의 원산지 표기 필수
 - 육류 외 식품 원산지 표시 : 식품의 50% 이상 차지하는 성분의 원산지 또는 발생지 표기 필수
-

- 식품업체의 다양한 식품 가공 방법을 고려해 책정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對이탈리아(EU) 농식품 수출 절차



1



>>>

2



>>>

3



<<<

증인경제운영인(AEO) 인증 획득

(필요 시) AEO 인증 중 1개 선택 취득

- AEO C : 세관 간소 인증으로 절차 간소화
- AEO S : 보안 안전 인증으로 사전신고 용이, 세관 검사 혜택 부여
- AEO F : 세관 간소 및 보안 안전 혜택 부여

현지유관부처 이탈리아 관세청

세관등록번호(EORI) 발급

통관 시 EORI 번호* 사용 의무

*EU에서 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통관고유번호

현지유관부처 이탈리아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BTI) (필요 시)

수입신고 시사용할 품목분류 코드 확정

- 정확한 세분 상품 분류번호 파악

현지유관부처 이탈리아 관세청

5



<<< 선적 및 운송 <<<

4



수입신고

- 제출서류
①수입신고서 ②운임보험 ③상업송장 ④포장명세서 ⑤선하증권
⑥원산지증명서 ⑦관세가격보고서 ⑧기타 세관 요구 서류

현지유관부처 독일 관세청

적하목록(ENS) 제출

화물 유형에 따라 제출시기 상이

- 해상화물: 출발지 선적 24시간 전
- 장거리 벌크화물: EU 최초항 도착 4시간 전
- 철도/운하운송 화물: EU 세관 도착 2시간 전

- 제출정보
①화물의 상세 정보 ②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정보
③운행 정보(운송 경로 등)

현지유관부처 이탈리아 관세청

6



>>>

통관 및 검역

서류검사 및 물품검사

- 수입신고서 요건 충족 시 수입신고 수리
- (필요 시) 검사 및 샘플 채취

(동·식물 제품) 국경통제소(BCP) 검역 요구

현지유관부처 이탈리아 관세청
회원국별 지정 국경통제소(BCP)

7



>>>

관세납부

(필요 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

-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 필요

현지유관부처 이탈리아 관세청

8



반출(합격 시)

라벨 제작 표기언어: 이탈리아어

표기사항: ①제품명 ②원료(성분)목록 ③알레르기 항원 정보 ④특정 성분 함유량 ⑤실 중량 ⑥보존기한/소비기한 ⑦보관방법 ⑧원산지
⑨사업자 정보 ⑩사용방법 ⑪도수(필요 시) ⑫영양성분표 등

2021년 12월 기준

